Coinhills

기업 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법 ICO

Author Jung Kim

Release September 2017





I C O

Initial Coin Offering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기업 투자 시장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 혹은 IPO)

- 기존의 기업은 사업의 시작이나 매출 발생 이전의 초기 운용을 위해 엔젤 투자자 혹은 벤쳐 캐피탈 등의 자산가를 찾아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기업 운용 중,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 및 금융 관련 법 규제 하의 기업 공개 등을 통한 주식 발행의 방법
- 엔젤투자 / 벤쳐 캐피탈 / 주식 시장 기업 공개 (IPO)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 기존 금융권이나 자산운용 기관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다수의 소규모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 킥스타터 (Kickstarter) / 인데오고고 (Indeogogo) / 와디즈 등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지원 및 자금을 중계할 수 있음
- 초기 플랫폼은 지분 투자보다는 베네핏 혹은 리워드 프로그램 운용

ICO

(Initial Coin Offering)

-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지만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중간 플랫폼을 요구하지 않는다.
-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에 기반한 토큰 (Token)을 발행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받아 기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Definition

-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의 약자
-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
- 모금 (Funding)에 대한 시큐리티로 암호화 토큰을 발행하여 증빙

Profit & Loss

- 사업 성과에 따라 토큰 수요 발생 가능 →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윤 발생
- 부실한 사업 성과로 인해 토큰 수요 감소 →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 사업 주체는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ICO 참여자는 암호화 토큰을 받아 보유



ICO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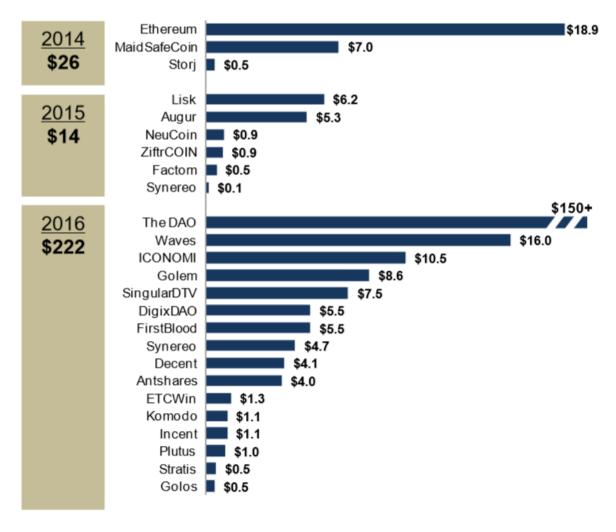


ICO 규모의 성장:~ 2016

- 최초의 ICO는 2013년 마스터코인 (MasterCoin)으로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 주*)
- 2014년 이더리움 (Ethereum) 이 1,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 달하며 ICO를 통한 기업이나 재단 운용의 가능성을 제시
- 2015, 2016년 들어, 여러 다른 형태와 용도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의 코인 발행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금을 모으는 많은 시도가 발생함

*)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및 토큰 발행의 경우, 발행 주체에게 돌아가는 일정 분량의 암호화 화폐 혹은 토큰이 있어 왔기에 최초의 ICO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다. Pre-Mine, Pre-sale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발행 주체들은 자금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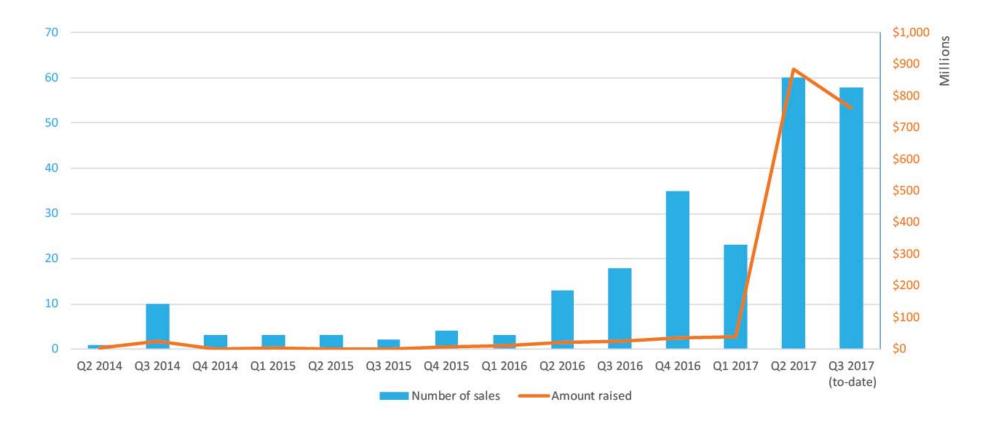
Source: https://www.smithandcrown.com/what-is-an-ico/



Source: Autonomous NEXT analysis #Token Mania



ICO 규모의 성장: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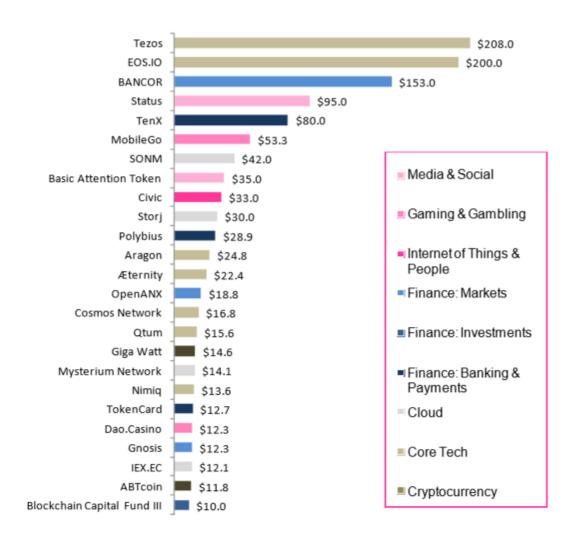
- 2017년 한 해는 수 많은 성공적인 ICO 펀딩 사례를 만들어 내며, ICO를 크라우드 펀딩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총 15억 달러 이상 규모의 ICO 펀딩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대규모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끝낸 ICO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Source: https://www.smithandcrown.com/trends-token-sale-proposals/



ICO 규모의 성장: 2017 주요 성공 사례

- 2017년 성공적인 주요 ICO 들의 모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1억 달러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펀딩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최고 모금액 기록은 수시로 경신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Source: Autonomous NEXT analysis #Token Mania



I C O

Cases





































































ICO 참여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및 암호화화폐 관련

- 현재 ICO 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역시 Blockchain 플랫 폼 사업 분야와 암호화화폐 관련 분 야의 신 사업들이다.
- 여러 산업에 활용 될 수 있는 블록체 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하는 OS 플랫폼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들이다.
- 테조스 (Tezos), 이오스 (EOS) 등이 대표적이며, 차세대 이더리움 (Ethereum)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핀테크 관련

- 현재의 핀테크 (Fintech)는 암호화 화폐 및 블록체인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업체들의 ICO 역시 활발 하게 진행중이다.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Payment), 외환송금 (Remittance), B2B 금융 거래와 분산 원장 (Ledger) 처리 기술 기업들이 주류를 이룬다.
- 텐엑스 (TenX), 방코어 (Bancor), 오 픈ANX 등

게임 및 인터넷, VR 관련

-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이 해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들이 ICO에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 및 하이테크 기반 산업 ICO 역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메시징, 게임이, 카지노, VR/AR 상에서 게임머니, 토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고 실제 적용되고 있다.
- 다오카지노 (Dao.Casino), 와이드크 립토(Wild Crypto), 킨 (Kin) 등

기타

- 현재 블록체인은 테크기업과 금융 관련 기업들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 이었으나, 다양한 용도의 발견에 따라 주변 산업 분야의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다.
- 문화, 예술, 부동산, O2O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까지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ICO 를 통한 자금 조달에 적극적이다.
- 바이버레잇 (Viberate), 이벤트체인 (EventChain), 아틀란트 (Atlant)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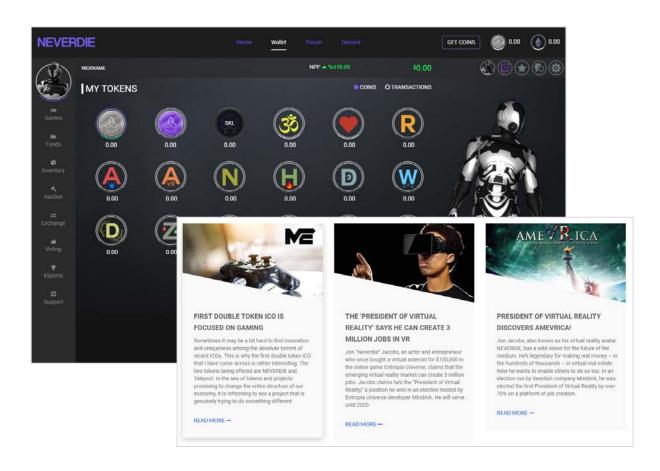
ICO Case: 핀테크:모네타 (Monetha)



- 스마트 콘트랙 기술에 기반하여 온라인 상거래의 결제 시 스템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사용자 리뷰 및 평가도 함께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
- 기존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수 많은 중간 단계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간소화 시킬 수 있으며, 이로인해 수수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강점
- · 스마트 콘트랙을 통해 구매 여부에 대한 증빙과 함께 구매 자 평가, 판매자 평가 등이 가능한 레퓨테이션 관리 시스 템이 특징



ICO Case: 게임/VR: 네버다이 (Neverdie)



- 블록체인 기반 하에 게임 토큰 (게임 머니)를 발행하고 유 통 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게임 및 VR 컨텐트 이용 시 미션 수행을 통해 토큰을 얻거 나 이를 사용(소진)하여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 게임 및 VR 컨텐트 개발자들은 이러한 에코 시스템을 통해 게임 개발 자금을 조달,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콘텐트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음.
- 게임 및 콘텐트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기종간의 게임 머니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음.



ICO Case: 부동산 중개 사업: 아틀란트 (At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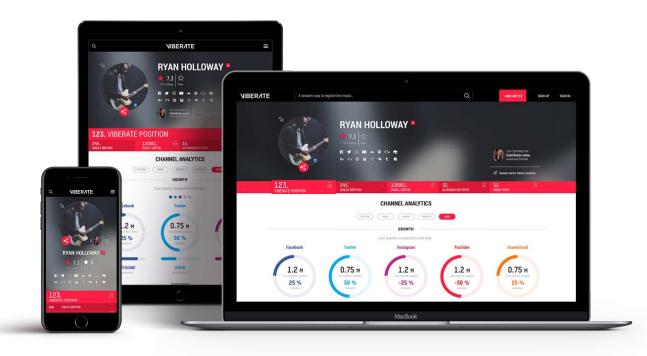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플랫폼으로 글로벌 사용성을 추구하고 있다.
- 부동산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유지하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특별한 중개 업자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 부동산 소유자 구매자 들 모두에게 어필할 예정이다.
- 부동산 단위를 토큰화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 (투자, 매매, 렌탈) 시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현재 ICO를 통한 토큰 (ATL) 발행을 진행중이다.

주)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상업적인 접근 외에도 토지 대장 자체를 블록체인 하에 관리하려는 국가 기관 차원의 연구 및 구현 역시 곳 곳에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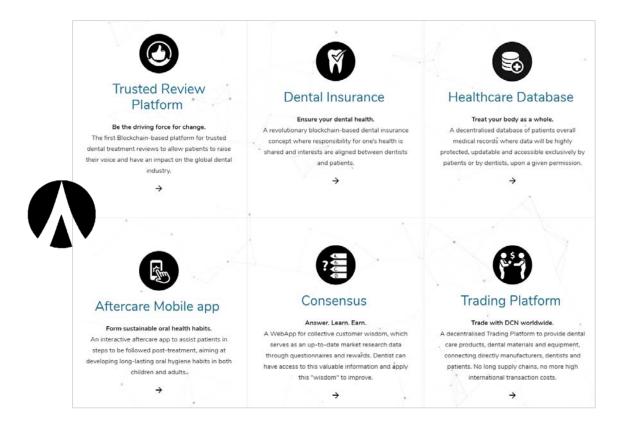
ICO Case: 문화 예술 산업: 바이버릿 (Viberate)



- 음악 공연 문화의 에코 시스템을 표방하며, 뮤지션, 이 벤트(공연) 기획자, 음악 팬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 현재까지 벌써 13만 명의 아티스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5천 여 개의 공연장 정보, 21만 건의 이벤트 정보가 등 록되어 서비스 운용 준비 중이다.
- 이 역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하에 VIB 토큰을 발행하여 팬들은 토큰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기획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며, 공연으로 인한수익금이 뮤지션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문화 예술 분야의 플랫폼 사업이라 할 수 있다.



ICO Case: 의료 산업: 덴타코인 (Dentacoin)



-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 하에서 운용되는 DCN 토큰을 통해 치의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길 기대하고 있는 사업
- 헬스케어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며 이를 통한 연구와 치료 및 의료 기술의 향상을 목표하고 치의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리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보험, 에프터케어 등의 치의와 연관된 각종 분야에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연계로 확정성 있는 치의 토탈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주) 덴타코인 ICO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사용의 취지, 새로운 산업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한 점을 높게 살 수 있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혹은 현실화 방안이 부재하거나 모호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ICO Case: 기타

ICO 활성화로 인해서 블록체인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연계 서비스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상관 없는 개별 산업 고유 비즈니스 역시 ICO를 시도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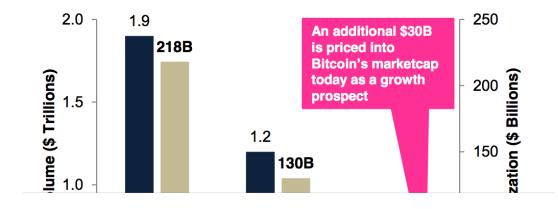
- P2P 랜딩 (Lending or Loan) 서비스
- 크립토 은행 서비스
- 크립토 자산 운용 서비스
- 토지 대장, 부동산 정보 및 거래 서비스
- 각종 중개 계약 관련 서비스
- 의료 기록 및 리뷰 서비스
- 농수축산 관련 산업 연계 서비스
- 태양광, 광산 등 간접 투자 연계 서비스

I C O

Regulation



교환 수단 - 화폐 - 로써의 가치 : 비트코인 블록체인 트랜젝션 량



- 실제 화폐로써의 교환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트렌젝션 량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거래소 내의 거래량은 무관)
- 전세계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일부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2016년 4분기 트랜젝션과 비교
-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현실에 크게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힘든 수치이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결제 수단은 비자와 마스터 외에도 무수히 많다.)

Source: Autonomous NEXT analysis #Token Mania



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 가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u>하루 거래금액(19일 기</u>준)이 2조6018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u>코스닥 하루 거래</u>금액(2조43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 dir/2017/08/21/2017082101796.html



암호화화폐 산업에 대한 시각차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 화폐의 블랙머니 활용에 대한 강한 경계 및 우려'

'발행 주체, 통제의 권한이 불 명확함에 대한 금융 시장 질 서 파괴, 국가 통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



'막을 수 없는 신기술에 대한 인정 과 국가적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 가 경쟁력 강화 기회'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으로 핀테 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 용창출과 세수 확보 기회'



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에 대한 주요 국가 입장



미국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관할 주 (State)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제도화 하여 기존 금융권에 안착시키려는 의지가 큼.

하지만 기존 금융법 운용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시, 관련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중국

결제처리는 불법, 현물로써 인정하는 방안 (개인간 거래는 묵인) 중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금지

최근 ICO 불법 간주,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중단 조치 등 강력한 제제 정책 시행



일본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닌 통화로써 인정. 비트코인 구입에 대한 소비세 폐지 등 국책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힘유수 금융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차세대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큼



인도

비트코인 관련 업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법 적용을 통한 제제에 적극적임.

하지만 최근 법규를 준수 하에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많은 시도 엿보임.



유럽연합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 없음. 전자적으로 양도, 저장 및 거래 될 수 있음.

독일과 영국 등의 선도로 각종 규제안 마련 및 법제 안에 서 비트코인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러시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불법 판단하여 강한 제제. 최근들 어 제도화 시킬 수도 있다는 관계부처 개별 입장 노출.

최근 러시아 국영 은행이 이더리움 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하는 등 활성화 조짐도 보임



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에 대한 주요 국가 입장

대한민국

화폐가 아닌 재화(현물) 성격 부여. 거래소 사업 등은 인가제 도입 추진 중.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 도입 추진 움직임 ICO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경고

*) 현재 관련하여 특별한 법령이나 시행령이 발현 된 것은 없음. 현재의 자본시장법과 금융 관련 법에 의해 계좌 추적이 가능한 거래 모니터링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 법 해석에 의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



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에 대한 주요 국가 입장

관련 보도 자료 모음

http://www.livebitcoinnews.com/will-eu-define-ico-crypto-tokens-new-asset-class-following-proposal/

https://www.cryptocoinsnews.com/russias-central-bank-could-tax-bitcoin-deem-it-a-digital-commodity/

https://news.bitcoin.com/eu-to-consider-adopting-new-italian-anti-money-laundering-laws-that-directly-address-bitcoin-exchanges/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7090508457661420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 of bitcoin by country or territory

http://www.bloter.net/archives/181894

https://www.cryptocoinsnews.com/russian-authorities-bitcoin-poses-no-threat-wont-banned/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8334

http://www.investopedia.com/news/japan-finally-recognizes-bitcoin-after-long-battle/

https://news.bitcoin.com/japan-sale-bitcoin-exempt-consumption-tax/

http://techm.kr/bbs/board.php?bo table=article&wr id=4079

https://www.coindesk.com/ethereum-foundation-strikes-deal-russian-development-bank/

http://biz.chosun.com/site/data/html dir/2016/03/04/2016030402580.html



IPO vs ICO *

	IPO	ICO
제도화	• 금융 감독 기관 및 주관사를 통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법 제도에 따른 인증 과정을 요구함	 현재 관련된 법적 제한이 없으나, 수신 형태의 하나로 취급하여 제제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됨
투자금에 대한 증빙	● 증권 발행 (주식 계좌의 잔고)	● Blockchain 혹은 Digital Ledger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토큰 (Token) 발행
시행 가능 시기	• 이윤 창출이 가능하여 기업 건전성을 확보한 시점 이 후	• 초기 아이디어 단계
위험성	 부실한 경영 등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거나 적자, 혹은 도 산하는 경우 손실 발생 하지만 각종 법정 공지 자료를 통해 주주들은 미리 손실을 예 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사업 시작 이전부터의 청사진만을 근거로 하여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위험 부담에 노출
수익성	 각종 데이터를 통해 미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기업에 한정 하기 때문에 대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그 어떠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 반대로 현실성 없는 접 근으로 한 순간에 사라질 위험 역시 존재
거래	주식 시장 (혹은 장외 거래소)대부분 기업 소재 국가의 관할 거래소 상장 주식	• 전세계 암호화 화폐 거래소 (토큰 거래소)

^{*)} IPO 와 ICO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약어를 사용며, 펀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기에 이해를 돕고자 해당 비교표를 제시한다.



IPO vs ICO : 근본적인 차이점

상장 심사 조건 (KOSDAQ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 후 경과 년 수	3년 이상	
자기 자본	30억 원 이상	
자본 상태	자본 잠식이 없을 것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당기순이익 20억 이상	
경영 성과	• ROE 10%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시총 300억원 이상	
	• 최근 매출액 50억원 및 매출 증가율 20% 이상	

일부 조건만을 발췌하여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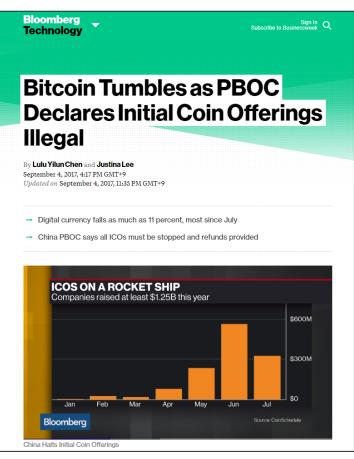


반면 ICO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전혀 없다.



ICO 규제 : 중국 : 강력한 규제안 발표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면 금지 조치
- ICO를 진행 중인 기관 및 개인은 즉시 자금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라 지시
- 이미 ICO를 통해 모금을 끝낸 기업 역시 투자 자에게 자금을 돌려 주도록 명시

https://techcrunch.com/2017/09/04/chinas-central-bank-has-banned-icos/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9-04/china-central-bank-says-initial-coin-offerings-are-illegalhttps://www.coindesk.com/reports-chinas-regulators-consider-suspending-icos/



ICO 규제 : 미국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Blockchain experts are worried that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 regards to the issuance

of such coins could pose dangers to investors and may be a cause of concern for

According Reuter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 said to be taking a hard look

at the increased use of such offerings, with the growth of so-called ICOs surging in recent

government regulators as ICOs are "high on radar" of regulators.



It looks like ICOs, shorthand for initial coin offerings, are about to undergo a lot more scrutiny.

The SEC has concluded that the digital currency financing events will be regulated as securities, meaning unregistered offerings c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decision was announced on Tuesday.

To reach its findings, regulators evaluated an offering facilitated by "The DAO," which resulted in theft by hackers. The report concluded, "that issuers of distributed ledger or blockchain technology-based securities must register offers and sales of such securities unless a valid exemption applies." The SEC said its report served to remind "investors of red flags of investment fraud, and that new technologies may be used to perpetrate investment schemes that may not comply with the federal securities laws."

-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는 ICO를 통한 펀딩이 주식 취급의 성격을 띄고 있다 판단될 경우, 관련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를 피하기 위해 모금 (Sale 혹은 Funding)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 (Contribute) 등의 단어 사용하 거나, 주식 분배가 아닌 블록체인 토큰 지급 형태라 할지라도 관련 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면 규제 혹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즉, 기존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겠다는 의 지를 옅 볼 수 있다.
-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며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전통적 방식의 증권가 흡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SEC 승인 없이 유가 증권을 판매한다고 본다면 연방법 위반

https://cointelegraph.com/news/sec-is-still-eyeing-to-regulate-the-ico-market https://techcrunch.com/2017/07/25/sec-regulators-are-coming-after-icos/ http://fortune.com/2017/06/26/ico-initial-coin-offering-investing/

months."



ICO 규제: 캐나다: 순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캐나다 현지 금융 당국의 규제 하에서, 퀘 백주의 블록체인 기반 사회적 책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인 임팍 파이낸스 (Impak Finance) ICO 진행
-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을 마련 하여 샌드박스 하에 시범 케이스로 진행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암호화화폐 및 ICO 관련 불법 규정 소식과는 다른,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배드 운영과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법 운영 노력이 눈의 띈다.

http://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Canadas-1st-legal-cryptocurrency-crowdsale-launched-by-impak-Finance-454071 https://cointelegraph.com/news/while-china-is-getting-tough-with-icos-canada-voices-support-for-token-sale



맺음말

"암호화 화폐와 ICO 열풍에 편승한 투기적인 접 근은 강력히 경계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쉬운 절차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하고 모호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부실한 ICO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즉, 기존 ICO 성공 사례에 도취하여 ICO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없이 무조건 투자하고 보는 투기성 접근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맺음말

"의미있고 구체적인 규제안이 하루 빨리 마련된다면, ICO를 통해 수 많은 긍정적인 기회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빠른 속도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새로운 시도가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유관 기관이 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다.
- 암호화화폐 유통 및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ICO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주체에게 많은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헛점 역시 크게 존재한다.
- 정부 및 관련 기관 들의 조속하고 면밀한 연구를 통해 가능한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단, 암호화화폐 유통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 기여 가치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여, 미래국가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의 기술 발전 육성책 역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